

2018년 일본통상백서

- 일본정부가 7월 10일 2018년판 통상백서를 발표함
 - 올해로 발간 70주년을 맞는 이번 통상백서에서는 대규모 보조금과 기금 등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수행한 중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철강에 이어 반도체분야에서도 과잉생산이 발생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자국 제일부의료 각국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에 관한 기술은 일부에 그친 반면, 중국에 관한 기술은 전체의 30%를 할애했음
- 무역전쟁의 단초가 된 철강의 과잉생산문제에 관해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를 3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
 - ① 2005년까지 국유은행이 철강기업에 적극 융자하여 생산능력을 증가
 - ② 2006년-2015년은 이익률 저하로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
 - ③ 2016년부터는 각국의 비판을 받아 생산능력을 삭감하기 시작
- 이 때문에 과대하고 저리의 융자가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으므로, 정부보조금은 사실상 기업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연명시키는 조치였다고 비판
- 반도체에 대해서도 철강에 이어 과잉생산 우려가 있다고 기술
 -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중점분야로 제시, 15조엔 규모의 정부계 펀드로 기업을 지원, 백서는 2001-2005년의 철강업계와 유사하다고 경계감을 표시
- 세계적으로 중국의 존재감은 이제까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음
 - 예컨대, 2017년의 경우 최대 수입상대국이 중국인 국가가 57개국으로 전세계의 30%에 이른다고 하고 일본은 2000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한국 등의 최대 수입상대국이었으나 모두 중국으로 대체됨
-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도 세계최대인 375조 엔으로 증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2조 엔으로 미국 다음가는 규모인 점도 인용,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크다고 기술
- 한편 보호주의 매진하는 미국을 언급한 것은 불과 30페이지
 - 2017년 2월 이후 미일정상회담 및 미일경제대화회로 주로 다루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제한에 착수한 점에 관해서도 일본을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세코히로 시게 경제산업상의 담화를 게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의 추과관세에 관한 기술은 없었음

I. 세계경제편

제 1장 세계경제 및 일본의 대외무역투자 동향

- IMF에 의하면 2017년 세계 실질GDP성장률은 세계무역이 크게 기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8%를 기록
 - IMF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리스크에 관하여, 보호주의적인 조치의 도입에 의한 무역투자활동에의 마이너스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WTO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 세계 무역의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하회하는 슬로우트레이드(slow trade)로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7년에 이것이 해소되어 2018년도 무역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구미의 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른 미국과 신흥국간 금리차 축소에 의해,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이 가속, 신흥국경제를 감속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는 2013년의 테이퍼탄트럼(긴축발작)시와 다른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로는 ①긴축발작의 교훈을 고려하여, FRB는 시장과의 소통을 충분히 시도 하면서 신중하게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신흥국의 펀더멘털이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단 앞으로 동향에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21조 9,514억엔 흑자로 2007년에 이어 과거 두 번째로 큼
 - 흑자폭 확대의 주된 원인은 제 1차 소득수지의 흑자폭이 대폭 확대된 점, 서비스 수지가 과거 최소의 적자로 된 점을 들 수 있음

제 2장 주요국 지역의 경제동향 및 대외경제정책 동향

□ 미국

- 미국의 2017년 실질GDP성장률은 2.3%로 2016년부터 가속되는 등 경기는 착실히 회복되고 있음
 - 미국경제의 착실한 회복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의해 미국의 무역액은 수출입 모두 증가, 2017년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적자액은 2008년 이후 최대
 - 미국에 무역적자를 발생시킨 국가는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 등 미국 무역적자의 약 절반을 점하는 대중국적자는 과거 최대

○ 미국 통상대표부는 2018년 2월에 2018년 「통상정책과제」를 공포

- ①국가안전보장을 지탱하는 통상정책, ②모든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통상협정 교섭 (NAFTA재교섭 등), ③미국경제의 강화, ④미국통상법의 공세적 집행(통상법 301조, 통상확대법 232조), ⑤다국간 통상시스템 개혁 등 5가지를 기둥으로 제시

□ 유럽

○ 유로권 경제는 내수 및 세계경제의 호조를 배경으로 견조하게 확대되고 있음

- 2017년의 경우 유럽 주요국의 GDP성장률은 1%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유로권 전체로는 통년으로 2.4%증가로 전년수준을 상회

○ BREXIT에서 발생하는 관세·비관세장벽에 의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국의 산업계가 영국 및 여타 EU가맹국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음

- 유럽에 주재하는 일본계기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80%이상의 제조업 기업이 관세에 의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또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기준·인증의 경우, 30% 전후의 기업이 우려하고 있음

○ EU는 유럽 역외와의 통상협정 체결에 적극 임하고 있음

- 그 중에서 2017년 9월 잠정적용이 시작된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과, 동년 12월에 교섭이 타결된 일본·EU EPA는 상호 관세·비관세장벽에 대하여 높은 수준에서 자유화를 실시하고 노동자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약속한 내용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개방된 공정한 무역투자규범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EU는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대내직접투자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이는 역내 중요한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가 배경으로서 2017년 9월 유럽위원회는 역내에 대한 외국직접투자에 대하여 가맹국 간 정보교환이나 의견제출 등을 하는 한도를 설립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함

□ ASEAN, 인도

○ 2017년 설립 50주년을 맞는 ASEAN은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로서의 존재감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가일층의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역내 무역·직접투자는 견조하게 추이되고 있으나, 부진한 일면도 있음

- ASEAN과 중국간 무역패턴은 수직형무역 비율이 높으나 2000년대에 들어 IT관련 제품의 수평형무역이 급속히 발전함
 - 특히 ASEAN의 대중국수출은 전기기계 부품에 크게 편향되어 있어, 앞으로 중국의 내제화가 진전되면 무역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 모디 정권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ICT정책 「디지털인디아」를 추진
 - 고액지폐의 폐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무현금화가 침투,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음
- 또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M코머스가 특징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2024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제 2위, 세계에서는 제 4위로 부상할 전망

□ 중남미

- 중남미 지역의 지역경제통합체인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지역 인구의 약 80%, GDP 및 수출액의 약 90%를 점함
- 태평양동맹의 특징으로서 가맹국의 높은 무역지향성을 들 수 있음
 - 2017년 3월 태평양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제국과의 제휴강화를 위해 태평양동맹과 조기에 고수준의 협정체결을 원하는 준가맹국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을 나타내, TPP11 가맹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에 교섭이 개시됨
- 메르코수르는 역외국·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서는 태평양동맹보다 늦었으나 2015년 말 아르헨티나에 이어 2016년에 브라질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후, EU와의 자유무역협정교섭이 재개되는 등 통상관계를 확대·심화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 2017년 러시아경제는 유가회복을 주된 원인으로 1.5%로 3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함
 - 러시아 경제는 유가에 의해 경제동향이 좌우되기 쉽고, 또 수출의 약 50%를 광물성 연료가 점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러시아는 외교정책상에 더하여 광물성연료의 판로확대를 시장이 성숙된 유럽으로부터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아시아태평양제국에 구하는 등의 관점에서 당해지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제국의 대러시아·중국 수출의존도를 보면, 2000년 대러시아 수출의존도는 약 20%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한 무역구조이었으나, 2009년 이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대러시아 수출의존도를 상회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제국의 대내직접투자의 경우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 광물성연료 의존의 경제구조가 계속되는 중동 산유국에서는 유가가 대폭 하락한 201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의 급격한 감소와 케를 같이하여, 대폭적인 재정적자를 안게 됨
 - 2016년 이후, OPEC의 감산합의 등에 의해 서서히 유가는 회복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흑자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이 많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비전 2030」을 비롯하여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 구축을 위해 석유만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구조를 지향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는 역내무역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이 아프리카연합 가맹 55개국·지역에 의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권(AFCFTA)설립 노력임. 2015년 교섭이 시작되어, 2018년 3월 제10회 교섭 포럼에서 발족이 합의되어 2018년 말까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

Ⅱ. 분석편

□ 확대되는 디지털무역

- 세계의 월경 EC시장은 2014년의 2,360억 달러에서 2020년에 9,94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월경 EC이용자도 동기간 중 약 3억 명에서 9억 명을 초과할 전망
- 일본의 B2C EC시장도 확대경향에 있음. 중국의 2016년 인터넷 소매시장 규모는 9,394억달러로 EC화율(19%)로 공히 세계 1위

□ IT플랫폼의 약진

- 10년 전 세계 시가총액상위기업은 자원, 은행, 통신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IT플랫폼이 약진, 톱10중 6개로

□ 디지털무역의 과제

- 데이터의 자유로운 월경유통을 저해하는 데이터로칼리제이션 규제, 보안가제규격채용 요구, 소스코드 공시요구 등 데이터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증가 중
- 데이터에 관한 신규제가 도입되면, 자국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산
- IT플랫폼을 둘러싼 기존 업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및 소비자보호·안전확보도 과제

□ 신흥·개도국의 대두

- 2000년 이후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이 세계경제성장을 견인
- 세계GDP에서 점하는 신흥·개도국의 점유율은 약 40%로 상승

□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 특징

- 신흥·개도국에서는 2003년경부터 고정자본형성이 가속, 2016년에는 9.5조달러로 선진국과 거의 같은 금액의 규모. 2003-2016년간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평균 36%
- 신흥·개도국은 고정자본형성 증가에 맞추어 소재산업의 생산능력도 대폭 확대되고 있어 선진국의 담보추이와 대조적
 - 세계 조강생산능력은 2017년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증가

□ 중국의 철강과잉생산문제의 경위

- ① 순수입시대 : 지방국유은행으로부터의 차관에 의해 조강생산능력을 증가 이익률 상승
- ② 순수출시대 : 생산능력확대 계속, 이익률 저하, 이 무렵부터 보조금 증가
- ③ 조강생산능력 축소후 : 이익률은 개선조짐도, 이번에는 상하위공정에 대한 차관·보조금 지원

□ 기업의 소유형태별 동향

- 국유은행으로부터의 차관 및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조치는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이 낮은 지방정부 소관 철강기업에 많이 투하

□ 새로운 과잉생산문제의 가능성

- 중국의 집적회로생산은 정부지원에 의해 설비투자를 급확대, 철강의 순수입시대에 유사하나 설비투자는 아직 이익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않고 있음
- 새로운 지원방법으로 산업육성기금이 등장
- 앞으로 과잉생산능력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재정정보조의 일중비교

- 일중의 집적회로 산업진흥책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크게 다름

- 중국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대매출액비 약 2%-4%규모. 한편 현재는 ROA가 저하경향
- 일본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많아도 대매출액비 0.6%이하의 규모. 한편 ROA는 상승

□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력 변화

- 중국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소비가 총자본형성을 누르고 최대로 종래의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서서히 전환
- 업종별로는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정보기술서비스산업이 2017년에 전년비 26% 성장

□ 중국의 신산업 발전

-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는 2016년에 약 23조위안으로 세계 제 1위
- 소비자용 인터넷서비스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행예약, 요리 배차 서비스, 금융 관계 분야에서 이용자수의 증가율이 높음
- 셰어링이코노미의 시장규모도 2017년은 전년비 47%인 약 4조 9천억 위안으로 급속히 확대

□ 활발한 창업활동

- 2017년 연간 신규등록기업수는 607만건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중국이 2.2조엔으로 미국 7.5조에 이어 제 2위

□ 중국의 이노베이션 향상

- 중국의 국제특허공개건수는 과거 18년간 미국일본의 공개건수와 같은 규모로 증가
- 「중국제조 2025년」의 중점 10개 분야를 보면, 특히 IT관련기술에서는 세계 주요국으로 등장
- 한편, 바이오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미국과 기계관련 분야에서는 일본과 각각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 대량의 고도인력

- 중국에서는 근년 연간 약 20만명이 신졸로 창업
- 중국으로부터 미국에는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학, 중국정부의 귀국촉진책도 있어 중국에서의 이노베이션·창업에의 유력한 인재공급원으로 기여

- 중국에서 신산업의 약진, 이노베이션력 향상, 활발한 창업활동 상황에 관하여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확대되는 중국의 대외무역

- 중국을 최대수입국으로 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 2017년에는 세계의 약 30%(57개국)으로 제 1위임
-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 되어있는 국가도 수입과 비교하면 적으나 세계의 약 16%(약 30개국)으로 미국에 다음 가는 지위임

□ 중국의 주력수출산업 변화

- 중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은 섬유산업으로부터 전기광학기기 산업으로 변화
- 중국의 전기광학기기산업의 부가가치 기준으로의 수출비율 증가율은 통관기준으로의 증가율을 상회함, 국내에서의 부가가치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부품의 현지조달화·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

□ 대중무역에 관한 각국 동향

- 1995-2016년 중 반덤핑(AD)조치의 피발동건수는 중국이 866건으로 1위, 최근 건수는 증가경향이며 발동국은 구미 등 선진국보다 신흥·개도국이 많음
- 미국은 대중 AD에 더하여 통상법 301조 등에 의해 대중무역에 관한 조치를 검토·실시

□ 확대되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 2010년대에 들어, 중국기업에 의한 선진국의 공업·하이테크기업의 매수가 활발
- 미국은 중국기업이 미국기업매수안건을 승인하지 않는 등, 대내직접투자규제를 강화
- EU는 유럽위원회가 역내직접투자에 관한 심사한도신설을 제안, 독일 등 가맹국 차원에서 규제강화 움직임

□ 중국 고성장의 결실

- 2017년 일본의 대중수출액은 과거 최고인 14.9조엔. 식료품, 소비재, 산업용기계(반도체제조장치·공작기계)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소비자에 의한 일본으로부터의 월경 EC구입액도 1조엔을 초과하는 규모로 증가

□ 중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

- 중국의 일인당 소비액은 2013년의 연간 13,000위안에서 2017년에는 18,000위안으로 증가, 그 중에서도 교육·문화·오락, 건강·의료 지출의 점유율이 상승
- 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수반하여 관련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재중 일본계 법인의 전개상황과 과제

- 재중 일본계 현지법인은 제조업 비율이 많은 것이 특징. 왕성한 중국내외의 수요를 파악, 매출·이익 모두 증가
- 한편, 일본 서비스업은 구미에 비하여 뒤늦음. 중간층·유아·실버시장 등 성장하는 중국소비시장에서 가일층의 성장여지가 있음
- 중국에서의 일본기업의 가일층의 비즈니스 전개, 제3국에서의 일중기업협력에 의해,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활력을 일본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Ⅲ. 시책편


제 1장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 구축

- 글로벌경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7년에 일본은 TPP11에 서명하고, 또 일본-EU EPA도 교섭타결에 이르는 등 큰 진전을 보임
 - 일본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 구축을 위한 대응과 관련하여, 메가 FTA, 미일경제관계, WTO, G7, G20, OECD, APEC의 최근 움직임을 소개

제 2장 신흥국전략

- 글로벌화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본이 괄목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국에 적극 진출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아세안·대양주, 인도, 러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주로 2017년 일본의 대응을 소개

제 3장 포용적인 통상정책

- TPP11 및 일본-EU EPA의 발효를 앞두고, 중견·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한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대강」의 내용을 소개
 -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는 「신수출대국콘소시업」에 의한 지원 상황과 식품관련 대응을 소개. 

IV. 2018년판 통상백서 목차

제 1부 세계경제편**제 1장 세계경제 및 일본의 대외무역투자 동향**

제 1절 세계경제동향

제 2절 일본의 대외무역투자 동향

제 2장 주요국·지역의 경제동향 및 대외경제정책 동향

제 1절 미국

제 2절 유럽

제 3절 아시아

제 4절 중남·미

제 5절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제 6절 중동 및 아프리카

제 2부 분석편 : 크게 전환하는 글로벌 경제**제 1장 확대하는 디지털무역**

제 1절 디지털무역의 현황

제 2장 신흥·개도국 경제의 대두

제 1절 세계경제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 변화

제 2절 세계적인 과잉생산문제에 대한 대응

제 3장 급속히 변화하는 중국경제

제 1절 중국의 거시경제동향

제 2절 신산업의 약진

제 3절 중국의 대외무역투자에 관한 분석

제 4절 일본의 비즈니스 찬스

제 3부 시책편**제 1장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 구축**제 1절 메가FTA 구축(CPTPP, 일본·EU
EPA, RCEP) 등

제 2절 투자관련협정

제 3절 미일경제관계

제 4절 WTO

제 5절 G7/G20 및 OECD 관련회의

제 6절 APEC

제 2장 신흥국 전략

제 1절 중국

제 2절 ASEAN·대양주

제 3절 인도

제 4절 러시아

제 5절 중동

제 6절 아프리카

제 3장 포용적인 통상정책

제 1절 경제연휴협정활용 추진

제 2절 신수출대국 콘소시엄

제 3절 식품수출관련

<참고자료>

경제산업성 『2018년판 통상백서』(2017.7.11.)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8/pdf/mokuji.pdf>